



희 망 의 길

'76 4월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

* 부활절 메시지 *

다시오실 예수님을 맞을 자

《성경 / 야고보서 5 : 1 - 13》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고 에덴동산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쫓겨난 인생은 고고성을 울리며 어머니 복중에서 나와 햇빛을 보는 순간이 죽음을 향한 여행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땅 위에서 범한 죄값을 또 뒤집어 쓰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같이 불쌍한 인생을 버리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생명의 구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같은 약속을 따라 구약에 400번이나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나사렛에서 비천하게 자라시고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신 대로 마침내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종려인처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또다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땅위의 역조창생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같은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신을 주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떠났던 영혼이 육체와 다시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이었던 것처럼 순수무잡한 몸으로 돌아간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변화된 영광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의 개선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은 악마 문제입니다. 인간 가운데 그 누가 죽음과 악마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자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며 우리들도 또한 죽음과 악마를 이기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30세부터 복음을 증거하신 주님은 33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시어 물과 피를 쏟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2시경이 되자 온천하가 어두워졌고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

며 숨을 거두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아 졌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주님의 시체를 나서서 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 정성껏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대로 사흘만에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일수록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위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 제자들에게 열한번이나 나타나셨던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떠올라 가셨습니다. 눈이 뜨고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 구름 가운데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죽을 날과 예수님이 재림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날이 있으며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하리만큼 극도로 발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재림 직전에 지구의 3/4가 일시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전쟁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돈만 아는 황금만능의 세상이 되며 자기만 잘 먹고 내 가정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의 개인주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님의 재림의 날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만나 뵈 사람은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뵈 사람은 두서위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일곱 귀신이 들었던 용서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의 간판도 아니요, 30년 믿었다는 역사의 간판이 아니라 과거를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괴로울 때는 무릎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앞으로 몇번이나 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이 『할렐루야 아멘!』을 높이 부르면서 모두 주님을 만나 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주(註) : 지면상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월간 증현

4월의 행사

- 4/제직회·남전도의 임원회·권사회 임원회·재정위원회
- 8-9/문답식(학습·세례)·세례식(9일)
- 11/성찬식·남전도의 월례회·권사회 월례회·월간 증현 편집위원회·여전도의 임원회
- 12-17/고난주간 특별집회(새벽·저녁)
- 18/부활주일·여전도의 월례회·재정위원회
- 19/교육위원회
- 25/구역권할회·주교 각부 월례회
- 27/정기당회

4월호 차례

〈설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자/김창인 목사...2

특 집

I. 부활절 수필

- 믿음과 사랑의 섬김/위영환 장로4
-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박명현4
- 자기중심성의 탈피/고재원5
- 또 다른 생명의 살아남/백희연5

II. 성도와 술·담배

- 성서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정상우 목사6
- 성도의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좌담회 ...8

〈영신도를 위한 신학대설〉

-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정웅11

〈5월 구역공과〉 사도신경·주기도문14

〈구역장 노우트③〉 권찰의 위치와 심방요령

- /백성룡 목사15

〈칼레인〉 총동원전도/『증인』12

〈컬럼〉 생활의 부활/오태용13

〈책소개〉 기독교 교리 요약12

〈찬송가 해설④〉하나님의 진리 등대13

〈교회 뉴스〉16

〈기자석·편집후기·표지설명〉18

〈화보〉충현교회 교역자19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아세아 방송(1570)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권 두 언

부활의 의미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부활절이 있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던 흙속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돌아나는 그 신비, 그리고 거기서 많은 색깔들의 꽃으로 변하는 원색의 피——이것은 지상의 이적중에 이적이라고나 할까? 그러면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네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 그는 사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무덤에 그냥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야였으며 이것이 그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된 것이다.

두번째로 부활은 의(義)를 확립시켜 준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과 진리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예수님은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남아 계셨다면 이 세상은 온통 불의가 판치는 도덕적 혼돈을 일으켜 선이란 하나의 신기루요, 망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킴으로써 의는 반드시 승리함을 확증한 것이다.

세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 것을 증명해 주는 담보를 이다. 요14:19에 “이는 내가 살았고 또 너희도 살것음이라”고 했다. 즉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전 15:20)로서의 증거이므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사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네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오 날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 제심을 의미한다. 마 28:20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순간마다 재확인할 수 있음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의와 사랑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했듯이 그와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되며 이곳에서의 생이 전부인양 살아서도 안된다. 너무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실망할 이유는 없다.

〈주간〉

믿음과 사랑의 섬김



위 영 환 장로
(해의복음성교회 회장)

누구나 다 같겠지만 새해를 맞이하면 제 나름대로 새해의 목표를 설정한다. 지난 해 나의 실적은 화평한 가정, 근심한 직장생활, 결실있는 교회 봉사, 국가의 안배 기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자아의 재발견, 기여도 있는 봉사, 의와 구원의 선포, 국가의 안배 기원, 그리고 천국시민의 합격을 목표로 정하였다. 목표 설정은 대동소이한 어휘의 나열일지 모르나 세월이 갈수록 심오한 신앙의 경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뜻만은 강하여짐을 새삼 느낀다.

기나긴 겨울도 이제는 가고 양춘 4월을 맞이한다. 따사란 봄이 오면 대지는 그리고 자연은 싱그럽게 노베한다. 과동하는 사이 불 켜지 않았던 내 집 정원에도 개나리가 피고 라이락은 그윽한 향기를 뿜으며 아기 살구나무에는 어여쁜 꽃이 피어날 때이다.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듯이 우리도 한알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정성과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한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를 속량하시며 우주에의 새 기원을 가져온 기쁨과 승리의 절기이다. 부활절을 당하면 연상되는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 앞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은 한 여성도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갈릴의 호수에서 부활 후 나타나신 주님의 마지막 부탁과 축복의 말씀을 경청하는 열 한 제자의 모습이다. 전자는 부활의 증인이요, 신앙의 용기와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고, 후자는 복음 전파의 의무와 주님 자신이 제림하실 때까지 영으로 같이 계시겠다는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약속을 진지하게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다.

나는 기독교의 자랑인 부활의 의의를 깊이 되새기면서 내적 생활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고, 외적 생활에서는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명사업의 역군으로 만방을 상대하여 내 고장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 전파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탄생하시고 갓은 고초와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대속코자 감브리언덕의 십자가 지신 주님, 새벽 미명에 영광의 부활을 하시고 40일 후 베다니 앞에서 백일청천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시간은 알 수 없으나 무화과나무잎이 무성하면 그 때를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제림을 믿고 학수 대망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지켜 주님을 영접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이 부활절에 붙여 소원한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



박 명 련
(제일성가대원)

국민학교 때의 일이다. 막내인 나는 항상 어머니 곁에서 잤다. 추울 땐 포근한 품에서 더울 땐 어머니 무릎을 베고서야 잠이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사를 지내시러 외갓집에 가신 적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처음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것 같다. 그날 밤은 텅빈 어머니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며 영 잠이 들 수가 없었다. 죽음의 공포가 물려들었다. “나도 언젠가는 늙어서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야겠지. 슬도 못쉬고 눈도 잠깐채 언제까지나 꿈쩍않고 있으려면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끝이 없는 걸까?” 축축하고 어두운 침묵 속에 지금 누워있기라도 하듯 나는 한없이 울며 밤새는 졸도 못했다.

무덤에서 사흘만에 부활하십시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권능의 손이 이 두려운 무덤의 공포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20 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다. 그동안 주님의 음성은 계속 나를 부르셨으나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거역하기만 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어릴 때의 생생한 무덤의 기억은 마음 한 구석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흑백 사진처럼 무의미하게 되고 생명있는 천연색의 세계로 변해버리는 듯한 거듭나는 순간이 왔다.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 내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이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게 하심으로 확신을 주시던 은혜가 내려졌다. 그 때 주님의 얼굴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밝고 환하게 눈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해 쫓기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나를 위해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보다 더 완전한 증보가 어디 있을까. 누가 그리스도의 증보를 부족하다 트집잡고 나를 중시할 수 있을까.

지금도 주님은 때를 맞춰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을 통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 때마다 내 앞에 놓였던 불가들은 주의 음성으로 인해 가늘고 희미해진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앞에 놓인 무덤 같은 장애에서 부활하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

자기 중심성의 탈피



고 제 원

〈고등부 교사〉

자기중심성을 증폭시킴에 있어서 부딪치는 인간의 방황과 회의와 갈등은 나 자신에게 휴양이라는 허울 좋은 건단을 내려 어느 아름다운 산골짜기의 외딴 집에서 한겨울을 보내게 하였다. 정신적인 고뇌와 피로움이 환경의 변화로 엿겨 가리라는 건단이 오진이었음을 며칠 묵고서야 인식했으나 내친 결음이니 쉬었다 가자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냈다. 축적된 정신적 억압은 휴양이라기보다 자신을 자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신을 밀던 무거운 머리를 건널 수 없어 사방을 분간 못할 정도의 어둠이 깔린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연히도 발견한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 시냇가 바위 위로 인도하여 시냇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였다. 주위는 모두 죽어 있는 상태였고 곁들여 나 자신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다. 단지 흐르는 시냇물 소리만이 살아 있었다. 피로움이 북받쳐 오르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살아있는 시냇물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부르심의 소리가 나의 켄전을 울렸다.

사람의 부르심, 나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에타는 부르심이였다. 나는 바위에 엎드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다. 현재까지의 나의 자기 중심적인 삶과 주님을 의뢰한 생활을 회개하고 축적된 모든 것을 털어 놓고 자신을 주님께 맡겼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긴 시간이 흘렀고 주위는 역시 조용했으나 상황은 조금 전과는 정반대가 되었다. 주위뿐 아니라 나 자신이 정신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다. 그것은 죽음에서 해방된 나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체험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에 있어서 꺾어야 할 모든 문제를 피로움, 갈등, 회의, 방황 등에 얽매어 살고 있다. 나 자신도 이러한 생활을 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자기중심성의 탈피”에 있다.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전체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행해야겠다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의 부르심과 주님의 그것이 나로 부활을 체험케 한 것처럼 사랑만이 죽음과 자기중심성을 탈피시킬 수 있으며 이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고 또한 부활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부활의 새아침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늘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하기를 다짐해 본다.

또 다른 생명의 살아남



백 회 연

〈대학부 교사〉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일까?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기실 삶의 원리를 몰랐던 20년간 나는 생의 참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찾아 헤매었고 많은 시간을 스스로 싸우기도 하였다. 그러다 한 순간 하나의 빛을 보았을 때 나는 죽었고 나의 어린 부위만이 진실한 나의 것으로 그 빛 앞에 참된 본성(本性)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가슴 깊숙이 숨겨놓은 대이는 아름이 생명 아닌 생명을 죽이고 또다른 생명이 살아남인데 그것은 내 생의 내부에서 이루어진 첫번째 부활임에 틀림 없었다.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후에도 나는 여러번 실패했고 그 때마다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 승리의 원천이신 부활의 주님 앞에 아무런 저력 없이 올랐다. 주님은 한 죄인의 간절함에 민망하시어 다시 나를 안으시며 가난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으로 혹은 용서로 부활케 하사 새로운 힘을,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셨다. 내 의식의 피로운 이중성에 갇혀 싸우고 있노라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로 산 자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의 심장을 자극하며 얽매진 주체 못할 의식들을 하나씩 풀어 주님을 향해 뜻을 올조리게 하시며 혼란 속에서 전제내린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은 아버지께로서 받은 것인데 스스로 교만하여 우월과 열등을 맛보며 마음의 진실을 잃고 정직한 영을 스스로 속이게 된다. 이렇듯 진실한 자아를 잃게 되면 행동은 비열해지고 나약한 인격은 가장 심하게 무너짐을 당한다. 과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가? 또 자신의 능력은 서 있는가. 모든 문제가 여기에 귀결된다면 틀림 생각일까?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마음을 바치고, 사랑을 바치고, 또 뜻과 정성을 바쳐야 한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자신을 잃어버리면 위의 것들을 온전히 드릴 힘이 없다. 자기반성을 통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찾아야겠다. 내 믿음의 위치, 내 사랑의 한계, 내 뜻과 정성의 영역을 돌아보며 나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하고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능력을 얻어 그 뜻을 따라 자신을 드러내 진실한 크리스찬의 생활을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은 굳어갈줄 믿는다. 신앙의 깊이를 위해 오래 참으며 어려운 심중(心中)에 용서를 익혀주시는 그 음성이 좋아서 어려운 길이지만 한 걸음씩 새로운 부활을 향해 언제나라도 감사히 가고 있는 것이다.

“술·담배가 크리스찬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라는 거센 입김 속에 가벼운 부정에서 침묵으로, 침묵에서 긍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 과연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교회만의 전통인가

—성서의 입장에서 본 술과 담배—

정 상 우 목사
(부 목사)

『왜 우리 교회는 주초를 금하고 있느냐? 천주교에서는 신부들도 다하고 있으며, 아니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진영에 속한 많은 교회에서는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껏 이를 금하고 있느냐?』 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흔히 주초(酒草) 문제는 신앙양심자유(Christian liberty)에 속한 문제나 윤리문제라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보수진영교회에서는 지금도 단연코 이 주초문제를 금하고 있다.

그럼, 왜 금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단순히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며 한국 장로교회총회의 이름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이 주초문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경건한 성도 등, 특히 교회지도자 등 저스틴(Justin), 클레멘트(Clement), 어거스틴(Augustine), 버나드(Bernard), 다미안(Damian), 칼빈(Calvin), 루터(Luther), 츠빙글리(Zwingli), 웨슬리(Wesley) 등이 주초금지를 역설했으며, 지금도 전세계 교회에서 말씀대로 믿고 경건하게 살려는 보수진영교회에서는 다 금하고 있다.

우리가 이 주초를 금하는 이유는 바로 성서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주초를 금하는 이유는 바로 성서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 성도는 주초를 해서는 안되는가 하는 이유를 두가지 면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살펴보기로 한다.

I. 성경적인 근거에서 본 이유

1. 담배

담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가 담배를 금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교훈)는 분명히 있다. 이제 여기에 관한 성경을 찾아 보자.

① 고전 3:16-17, 고후 6:16, 7:1... (너희 몸은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흡연은 우리 몸을 더럽히

고 있다)

② 롬 6:12-13, 요일 2:15-17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거나 좇지 말라. 그런데 흡연은 육신의 정욕을 좇는 행위다)

③ 롬 12:1-2, 열 4:22-24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이 되라. 그런데 흡연은 옛사람의 무익한 구습이다)

④ 딤후 2:14 (너희는 선한 일에 열심있는 천 백성이 되게 하겠다)

⑤ 약 4:17 (선을 알고서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상의 성구만으로도 참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사람이 된 성도라면 결코 흡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일 그당시에 담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담배를 입에 대시지 않으셨을 것이다(렐전 2:21; 고전 11:1)

2. 술

술 마실을 금하는 성구는 성경에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다.

가. 술이 주는 해독을 경고하시는 성구

- ① 신 21:20 (술은 패역 불순종 방탕케 한다)
- ② 신 32:33 (술은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 ③ 잠 20:1 (술은 교만케 한다)
- ④ 잠 23:21 (술은 가난하게 한다)
- ⑤ 호 4:10-11 (술은 마음을 빼앗는다)
- ⑥ 호 7:5 (술은 몸을 병들게 한다)
- ⑦ 고전 6:10 (술취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 ⑧ 전 10:16 (주연은 국가의 화가 된다)

나. 술로 인하여 범죄하고 망한 실례

- ① 창 9:20-27 (노아가 술취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손을 저주함)
- ② 창 19:30-38 (롯이 술취함으로써 그 딸들과 동침함)
- ③ 삼상 25:36-38 (나발이 술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치심(죽음))
- ④ 삼하 13:28-29 (압논이 술취하고 즐거워하다가 죽음을 당함)
- ⑤ 단 5:2-6 (벨사살왕이 주연에서 하나님의 심판



◇ 다음에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 ① 내가 술·담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② 내가 술·담배 냄새가 나는 입으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 ③ 담배·술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 ④ 내가 담배·술을 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을 받음)

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

- ① 례 10:9 ② 민 6:3
③ 신 29:6 ④ 사 13:4-14
⑤ 렘 35:6,8,14 ⑥ 롬 14:21 ⑦ 눅 1:15

라. 술을 보지도 말라는 명령

- ① 창 23:31
마. 술 마시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명령
① 창 23:20 ② 고전 5:11

이는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요, 내 몸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해치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상의 성구 외에도 많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술의 해독을 경고하시면서 술 마시지 말 것을 명하시는 데 새사람이 된 성도로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성도로서 감히 술을 마실 수 있겠는가.

II. 청지기직분에서 본 이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들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다. 우리가 쓰는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저으신바 하나님의 것이며(사 24:1) 오늘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재물·재능·생명 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더구나 우리의 몸과 생명은 창조의 원리에서보다 구속의 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바 된 주님의 것이다(롬 14:8).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생명을 주 안에서 잘 간수하며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귀한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독소가 있는 주초를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한다는 것은 「구습을 좇는 옛사람」(엡 4:22)일 때는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엡 4:24) 성도로서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바로하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요 내 몸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해치는 죄가 되는 것이다. 주초가 주는 해독에 대해서는 많은 의학적인 통계조사가 발표되었으며 담배장사를 하는 전매청에서 담배갑에 「경고문」을 쓸 정도이다.

통계에 의하면, 주초의 해독으로 병사하는율이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이라고 하며 또 자살자는 1/3이 알코올 중독자이며 모든 범죄의 70%가 술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물론 자신에 대한 청지기직분에서 우리가 금해야 하는 일은 주초만이 아니다. 우리의 영육에 해독을 주는 모든 방탕한 행위는 모두 청지기 직분으로서 볼 때 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주초문제는 자신에 대한 청지기직분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분」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다. 술과 담배는 우리들의 생활에 무익한 것이다. 더욱 우리의 영육에 큰 해독을 주는 무서운 독소이다. 그런데 이같은 것을 위해서 돈을 들인다는 것은 큰 낭비인 것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헌금의 기준이 되는 십일조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전도비 등 선한 일에는 인색하면서 음주와 흡연을 위해 돈을 낭비한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회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물론 주초만이 아니고 기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지 않은 모든 재물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며 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불의한 청지기를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마 25:19; 고후 5:10). 이처럼 주초문제는 성서가 말씀하시는 청지기 직분으로 보아도 성도로서는 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이다.

주초문제는 구원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것이다(엡 2:8-9). 그러므로 담배·술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초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냐가 문제일 것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담배·술은 세상적인 것이며 옛사람의 생활습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불신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윌리엄 오어(William W. Orr) 박사의 말처럼 이것들(주초)은 「마귀가 만든 특제품」으로서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모든 죄악을 유발시키고 모든 불행의 가져오게 하며 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한다면 이 주초(酒草)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간의 귀한 생명과 성도의 신앙심마저 해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들은 마귀의 세계에서 사는 옛생활의 특징이며, 또한 말세에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처녀(성도)들이 행하는 특징이기도 하다(마 24:38; 딤후 3:1-5). 만일 그리스도인이자 자처하면서 주초를 하고 있다면 아무리 신앙연조가 많고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육적인 그리스도인(고전 3:1)일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김받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spiritual man, 고전 3:1)이라면 술·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옛생활의 습관은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 교인이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은 단지 시대착오적인 관습이며 외형적인 특징일 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금주·금연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가 금주·금연을 하는 데는 외형적인 특징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도리어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더욱더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좌담회를 열었다.

경건생활의 실제적인 표현

▶좌담회◀

- 주 제/음주·흡연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
- 일 시/1976년 3월 29일 오후 7시-9시
- 장 소/「월간 증현」편집실
- 참석자/조선군 집사(유치부 부감) 박두현 집사(제일성가대원) 이정웅 선생(고등부 교사)
황의만 선생(대학부 교사) 오태용 선생(중등부 교사·월간 증현 간사)
- 사 회/정은표 집사(월간 증현 간사)

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음주·흡연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이 보고 느끼신 대로 자유로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 성도에게 주초(酒草) 행위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경건·절제 면에서 볼 때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뜻도 있지만 흔히 사회 법칙과 술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치롭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동사로 표현된 이 말은, 회랍어로 「메두코스」라 하는데 이를 「마시다/drink」라는 뜻과 「취하게 하다/intoxicate」라는 두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문상으로 볼 때 「취하게 하다」라는 뜻보다는 「마시다」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보는데 그 예로 모든 영어 성경이 intoxicate가 아니라 drin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휘상으로 볼 때 분명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3-8절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중 술을 멀리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감독이나 집사는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씀으로 보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술을 멀리함이 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불질로서의 「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술 마시는 행위」는 죄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마신다」는 것은 곧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 저 자신은 성도가 음주·흡연하는 것을 반대하나, 늘 염려되는 것은 개인 신앙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라고 보는데 음주·흡연의 행위가 신앙의 전부인양 판

단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교인을 죄인 중의 죄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담배문제는 성경에 담배에 대한 이렇다 할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성경적 근거를 들어 말할 경우 크게 이질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의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성도라면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법을 따름이 바른 태도라는 식의 객관적이며 타당성있게 강조되어야 하리라 고 봅니다.

박: 교리문제와 같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도리어 쉽게 설명되어도 음주나 흡연문제처럼 성도의 실제 생활에 관한 문제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음주·흡연하는 사람들의 실제생활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물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술 끊기를 더 원합니다. 특히 술꾼들을 보면 처음에는 술만 마시다가 나중에는 가는 데가 변합니다. 술에는 반드시 여자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런 데 자주 가다 보면 온갖 범죄는 물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보면 웃사람에게 술 마시려 가자고 할 때는 점수를 따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저 요령껏 재주를 펴우려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대로에 쓰러져 딛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술꾼들이지만 일반사회인들도 폭음을 하는 사람은 형편 없는 사람으로 몰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좀더 바르고 진지하게 살겠다는 성도가 이같은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군인은 비가 와도 결코 우산을 쓰는 법이 없고 우의를 입는데 그것은 우의를 입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지만 총을 쓰는 데는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이겠죠. 또 여고생들에게 양장이나 화장을 금하는 것은 그것이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일 것이니

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과 교회에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가 신자 아닌 사람들과 구별없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이같은 어려운 일을 하기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아까 어떤 분이 신자의 음주·흡연이 단지 지엽적인 문제처럼 말씀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엽적인 것 같으면서도 성도의 생활 전체를 잠식해버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경건생활은 성도의 생활중 중요한 면이라고 보겠는데 술과 담배 같은 것에는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지 이런 문제가 하나 무너지면 그것을 계기로 그밖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삼손처럼 성도로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길이 빠져들면 들수록 경건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 결코 더 경건된 생활로 변화될 수는 없겠지요.

또 성경에 「술 먹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식의 직선적인 말이 없다 해도 성경 전체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탄한 것을 버리라고 하셨으니 음주·흡연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의학적으로도 흡연이 건강에 극히 해롭다고 하는데 흡연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학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같은 해를 알면서도 흡연을 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켜가는 음성적인 자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 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는 성도가 음주·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며 경건한 성도가 취할 바른 생활태도라고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럼 모든 성도가 이러한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법을 좀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흡연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모든 생활의 표준을 성경에 뒤야 된다고 볼 때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없다고 하여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의의 병기라 했는데 담배나 술처럼 무가치한 것들로 우리 몸을 시달리게 하는 것이 과연 성도로서 할 일인가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어리다 해도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크리스찬 와일드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란 책을 권하고 싶군요.

조: 음주나 흡연이 꼭 신자나 아니냐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 술은 평화와 질서의 적이요, 부인의 공포요, 귀여운 어린이의 얼굴의 공포요, 언제나 무덤을 파는 자요, 어머니의 머리를 시게 하는 자요, 슬픔으로 무덤에 가게 하는 자이다. 아내의 사랑을 실망케 하며 어린이들에게서 웃음을 빼앗는다. 가정에서 음악을 없애 버리고 가정을 슬픔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술이다. <그레이트이>

□ 나는 내 두뇌를 술보다 좋은 면에 쓰고 싶었다. 나는 내 생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만을 생각했지 그 힘을 감퇴시키거나 마비시키거나 하는 일은 염두에도 낼 여유가 없었다. 나의 적이 되는 술같은 것에 두뇌를 빼앗기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T. 에디슨>



치고 독실한 신자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도 참 기독교신자가 되면 자연히 술과 담배가 불필요한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택함받은 노아나 노뎃 술 때문에 자녀들에게 큰 수치를 보였는데, 하물며 우리같은 사람들이야 일단 술에 손을 대면 적당히 절제하거라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제까지 좀더 적극적으로 못되었었다면 앞으로라도 주일학교 각부에서 이 문제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 신자가 남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혹 “저 친구 예수쟁이다”는 소리가 두려워 흡연하는 교인도 있는데 담배를 꼭 피워야 할 자리라고 느낄수록 자신이 성도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지요. 가령 제가 직장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경소에는 “아, 요새 예수쟁이들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하더라”고 빈정대던 친구들까지도 “너, 예수쟁이가 담배를 다 피우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절으로는 빈정대도 속으로는 항상 비신자와 구별하여 보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담배에 관한 세미나(seminar)가 있었는데 끝초들까지도 거의 모두가 흡연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는 이유는 우리와는 좀 다르지요. 예를 들면,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화재(火災)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흡연자들까지도 애써 담배를 끊으려 하는데 신자가 되어 담배를 피우려 하며 왜 애써 자기합리화의 이유를 찾으려 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다못해 대기오염을 막고 사회환경정화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앞장서야 할 신자로서 금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또 현실이 어떻구 저렇구 하며 담배 피우고 술 마시다 보면 결국 아닌 사람과 다름이 없겠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교인들에게 가끔 주초문제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 “뭘, 한두번쯤이야 경험삼아...”하며 백해무익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음주나 흡연을 해보아야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옛사람에 비해 현대인은 의지가 굉장히 박약하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신(神)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보며, 그러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꽤 의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같은 구차하고 알팍한 이론을 들어 입씨름하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려잡는 수밖에 도리

담배야말로 그럴듯한 자살도구다

가 없지요"라고 하시던 어떤분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박: 현실적으로 볼 때 젊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도 할 일이 많고 생각해야 할 문제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걸뭇만 들려 실속없이 뭉들거나 젊음의 술기와 순결등이 하잘것 없는 술·담배문제와 같은 것에 매달려 허우적이는 것을 볼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흔히 사교상 또는 사업상 불가피하다고 말하는데 술·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그런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죠. 술·담배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젊고 멋있는 크리스찬이란 보다 높은 차원에서 대담을 품고 큼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젊은이들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해도 어느 곳이나 떨어질 것 없는데, 단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특별대접을 받는다면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인데,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에요. 물론 그런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갈 만큼 신앙이 깊고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도리어 신자가 아닌 학생들과 동화하려는 반대적인 현상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흡주·흡연 문제만 해도 계속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면 점점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아요. 따라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부서에서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전체에서 서로 연관성있게 실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조: 저는 흡주·흡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역자나 교회의 어른들과 솔직하고도 진지하게 의논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 또한 율법적인 관점을 내리기에 앞서 참으로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고하였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저도 그 말씀에 동감입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특별히 중·고등부나 대학부 교사들은 성도의 경건생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성경원리에 비추어서 바르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정: 벌써 예정시간이 지났군요. 여러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라는 바는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개인생활에는 물론 교회에 덕이 되며, 어떤 면에서는 세속화의 물결을 막기위한 방파제구축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성도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술과 담배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두번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담배의 본성 — 보기에는 그럴듯하여 그 연기 속에는 30여종의 암을 일으키는 타르를 비롯하여 1,200여가지의 인체에 유독한 여러가지 화학물질로 되어 있지만 누에가 뽕실을 먹듯 서서히 인간의 수명을 잡아먹는 것(담배 1개비에 7분씩)이 특징이다. 그 대표적인 독소만을 취하여 보자. ① 니코틴: 골조직 속의 단백질을 파괴하여 몽롱한 백치 상태로 이끌어 면상과 사색에 장애를 준다. 또 장염을 일으키며 위장과 혈관을 좁혀준다. ② 타르: 폐암·위암·식도암·폐장암 등 30여종의 암을 유발시킨다. 물적 증거로 1971년 영국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27,500명 중 90%를 폐암으로 죽게 하였다. ③ 일산화탄소: 우선 연탄가스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라. 몸속의 산소를 소모시켜 산소 소비량이 가장 많은 큰골에 타격을 주어 기억력을 감퇴시킨다. 또한 동맥경화증과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 ④ 담배를 피우는 어머니가 낳은 아기는 담배를 안피우는 어머니가 낳은 아기에 비하여 사망률이 1/3이나 더 높다.

□ 우리나라의 이 독가스 배출인구(흡연자)는 얼마나 되며 일년에 연기로 사라진 돈은 얼마나 되는가? — 1973년 조사에 의하면 흡연자는 총인구의 29.3%인데 남자가 48.9%, 여자가 10%이다. 또 1974년 우리나라 담배 생산량은 513억 1,800만 개비로 1,757억 여원어치가 된다. 이는 7억원을 들여 교육관을 짓는다면 약 250개, 월 1,000달러 해외선교사 100명을 파송한다면 약 290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 이 망국초(亡國草)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가지와 일년생 열대식물로 남아메리카가 본 고향. 콜럼부스에 의해 유럽에 전해졌고, 1560년 스페인에서 최초 관상용으로 재배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이조(李朝) 제15대 광해군 10년(1618년) 일본에서 들어왔다.

술은 패역·불순종·방탕케 한다

□ 술의 본성 — 술로 인한 알코올 중독은 여러가지 급성 또는 만성 뇌의 장애와 정신병을 수반한다. 이로 인하여 각종 사회범죄가 유발되며 개인과 가정의 파멸시키기를 좋아한다.

□ 술로 인한 급성 알코올중독 — 갑자기 의식장애를 일으키며 혼수상태에서 지각력 장애, 착각·환각, 혹은 일시적인 망상까지 보이며 때로는 발작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한다.

□ 술로 인한 급성 정신병 —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볼 수 있는데 여러가지 환각이 나타나 보인다. 특히 작은 동물이나 벌레가 많이 보이는데 벌레가 온몸 위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망률은 4% 정도이나 폐나 심장이 나쁘면 사망률이 15%로 높아진다.

※ 전쟁·흉년·전염병 등이 세가지를 합해도 술이 끼치는 손해와 비교할 수 없다. <W. 클레드스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정 응

(고등부교사·종신연구원)

1.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는 유대당 베들레헬 구유에 탄생하시고 애굽에 피하시고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일하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그는 무덤에서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빌2:5).

2. 예수 그리스도의 세가지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되 단순히 권세와 영광만 받고 계시는 자가 아니라, 그는 능동적으로 그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선지(先知)의 사역(事役)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선지적 사역을 땅 위에 계속시킨다.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어 기억력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요 14:26; 16:7-15).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영광으로 성령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이방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신실한 교역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각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어 축복케 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2) 제사장(祭司)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은 것은 그의 수난이 종결되었다는 표현이요, 그의 제사장직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제사장직은 하나님 우편에서¹⁾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히 7:24-25; 요일2:2).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축복을 위해 간구하신다(롬 8:34).

(3) 왕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세번째 사역은 왕의 사역이다. 그는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며 그가 세우신 교역자들을 지도하신다. 그는 천군천사들을 통해 성도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케 하시며 또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를 초자연적인 섭리로 보

호하며 지키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 모든 국가를 세워 국왕들을 정하신다(롬 13:1).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위해 정부를 세우시고 국법을 만들어 평화를 유지케 하신다. 그는 세상 종말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고 불신자를 심판하시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분이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

칼빈의 5대 강령중에 세번째가 제한된 속죄(limited atonement)를 말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그는 법적 대표자로서 자기 백성이 받을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의미이다. 마 1:21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지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였다. 벰전 2:24에 보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기록되었다. 고후 5:14-15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롬 5:18에 「많은 사람」이나 고전 15:22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에 대조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라고 하여」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불신자, 신자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되었고 그 속죄가 미련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나 같은 죄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니,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만 섬기고 영광을 그에게 세세토록 돌리라. 아멘.

*주 (1) “하나님 우편”이란 뜻은 장소적으로 오른쪽이란 의미가 아니고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고난주간 특별집회



- 기 간 / 4월 12일(월)~17일(금)
- 장 소 / 우리교회 본당
- 집 회 / 저녁집회(오후 7시 30분) : 김창인 목사
새벽집회(오전 5시) : 정상우 목사
- 특별계획 / 금요일 저녁은 철야기도회로 모이며, 금요일은 온 교인이 금식한다.

■ 캠페인 / 총동원 전도운동

『증인』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할 이라. / 사 43 : 10

*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 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 눅 24 : 46-4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 행 1 : 8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도.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딤후 1 : 12

※ 오는 6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입니다. / 총현교회 전도위원회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

..... 신문·잡지 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교.....
.....인들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총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루이스 벌코프 지음

기독교 교리 요약

신복윤 감수

성광문화사 발행

박수준 번역

4·6판 218면 값 580원

조직신학은 성경연구 방법 중에 제목을 따라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두가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나는 진리의 체계를 세워주어

믿음의 교리를 빨리 터득하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노선을 분명하게 해준다. 더우기 오늘날처럼 신학의 오도(誤導)가 많은 때에 정통노선의 교리공부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루이스 벌코프 교수가 쓴 기독교 교리 책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쓴 좋은 책이다. 그 중에 작년 12월에 번역 출판된 「기독교교리 요약」은 간단하면서도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어서 평신도용으로 아주 좋은 교재가 된다. 각장마다 성경귀절을 일일이 수록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더 연구할 문제점과 참고 성경귀절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기성 목사 : 새신자부 지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

Let the Lower Lights Be Burning
(새 466; 개 222; 합 454)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나
우리 앞에 비칠 등대 각각 제 빛 발하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해매는 이 건져내세 살리세

연탄같이 새까만 어둠 밤, 발도 압록 속에 묻히고 폭풍우는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듯하더니 큰 여객선 한 척이 할리브란드 항구를 향해 조심스레 파도를 헤쳐 나가고 있었다. 타수(舵手)는 이렇게 사나운 밤일지라도 해안의 작은 두 등대불만 찾으면 무사히 입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지만 이상하게도 불켜진 등대는 하나 뿐이었다. 당황한 선장은 “여기가 분명 할리브란트지?”라고 조조하게 묻자 “분명합니다”라고 타수는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작은 등대들이 다 꺼져 있는데 항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 “찾아야지요. 아니면 죽는데요.” 타수는 자신있다는 듯 늠름하게 키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그 어둠 속에서 진로를 잃고 말았다. 때는 암초에 부딪치고 인명의 손실은 막대하였다.

무디(Dwight L. Moody) 선생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작은 등대가 되어 불빛을 발함으로 빛을 찾는 어두운 세계의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였다.

이 설교를 들던 무디 집회 찬송 인도자 필립 블리스(Phillip P. Bliss)는 자기가 먼저 큰 은혜를 받고 주석에서 이를 찬송으로 읊었는때 그것이 우리가 애창하는 본 찬송이다.

작사자 블리스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통나무 움막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고생하다가 12세에 크리스찬이 되어 줄곧 음악 공부에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작곡가 브래드버리(William Bradbury) 같은 스승의 지도를 받아 음악교사로 또 성가대 지휘자로 아낌없는 봉사를 하였다. 그는 아름다운 음성의 소유자로 D 저음에서 A프렐의 고음까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재질에다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찬송으로 읊기는 풍부한 창작력까지 축복을 받았다. 이런 귀한 달란트를 그는 짧은 생애(38세를 일기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끝까지 바쳤던 것이다.

크리스토퍼 켈러의 켈러(Keller) 신부가 한 번은 로스엔젤레스 클리치움 대집회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었다. 미리 약속한 대로 신호를 하자 갑자기 전기가 나가 장내는 일순에 암흑천지가 되었다. 이때 켈러 신부는 한 개피의 성냥을 켜 들고 십만명이나 되는 회중에게 모두 불을 켜서 들어보라고 했다. 그 순간 원형극장은 깜박거리는 작은 성냥불로 가득차서 대낮처럼 밝아졌다고 한다.

우리는 작은 등대. 세상의 괴로 상한 영혼들은 오늘도 편히 쉬 피난처를 찾고 있다. 풍량이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 휩쓸리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작은 등대불을 발하지 않으려나.

1700기 기념

생활의 부활

오 태 용

우리나라 사람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기 보다는 관념적이고 원리원칙적인 경향이 많다. 그렇게 된 까닭은 오랜 세월 군주사상이 반상(班常)을 막론하고 백성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 있어 실제 문제보다는 추상적이고 대국적인 것들에만 가치를 부여했던 때문이다. 또 한가지 원인은 우리네 학교 교육이 실천지향적이 되지 못하였던 데에 있다. 무슨 문제를 의논할 때 실천이 가능한 세세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몽실하여 듣기에 그럴 듯한 원칙적인 명제를 내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풍토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6개월전에 일과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한다.

교회라고 여기에서 예의일 수 있을까? 강단의 소리가 추상적인 수가 많다. 성경의 진리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일진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해 줘야 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 “주일을 성수하라”는 등의 말들은 하나도 실효력이 없다. 그 당시에는 아멘! 했을지 몰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가 아니었던가. 어른도 이리는데 하물며 주일학교 학생이라! 죄를 피하려던 어떻게? 믿음의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이 어떻게(How)를 바로 제시해줘야 신자가 잘 길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지탄받는 교인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가! 그들 때문에 천도의 입을 봉쇄당해야 하는 가슴아픔이 어디 한두번이던가!

이제 또 부활절을 맞는다. 도대체 현대에서 부활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성경 기록에서, 부활절 행사에서, 아니면 달걀에서? 우리 이번에는 그런 것 하지 말자. 형식적인 부활절은 더 이상 지키지 말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자랑하면서 그 생활은 옛날 그대로인데 부활은 무슨 부활을 자랑하는가?

기독교의 부활은 생활의 부활이다. 옛 생활은 무덤 속에 장사되고 새로운 생활이 부활되어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 그들의 옛생활과 부활 후의 생활을! 그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야 부활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옛습관, 옛행실, 옛사고방식 등이 인생의 초목들처럼 새로운 것들로 변화될 때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모를지거 크리스찬은 보통력(Civil Calendar)의 1월 1일을 새해로 기준 삼기보다는 부활 주일을 새해로 맞이하여 (Easter New Year라고나 할까) 의식(意識)과 생활에서 새로운 작오와 결실을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

주역공과

◇ 5월 공과 ◇

제 9 장 종말론

성경 : 고전 15 : 20-58; 계 21 : 1-27

찬송 : 179(합 135)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기 14 : 14의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시 살리이까” 하는 질문은 모든 세대를 두고 물어진 질문이다. 그런 데 놀라운 것은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고전 15 : 20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지고 만다. 바로 이점에 부활신앙의 중요성이 있다.

1. 육체의 부활

성경은 내세의 생명(또는 생활)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이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인 듯 하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의 천국생활은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것이란 점이다. 그럼 이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1

이에 대해 고전 15 : 36-38; 42-43에 신령한 몸이라고 대답한다. 즉 육체로 부활한다. 그러나 이 때의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현재는 지상생활에 적합한 물질적 몸을 가지고 있으나 부활한 때에 천국생활에 적합한 신령한 몸 즉 거룩한 몸을 가지게 되며 그 몸은 완전하며 병도 고통도 없는 몸인 것이다.

2. 영 생

예수님은 요 14 : 2-3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시고 바울은 롬 8 : 18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하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는 무엇이며 바울이 말한 장차 나타낼 영광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바울이 말한 영광은 이 천국의 생활 즉 영생이다. 그러면 영생이란 끝없는 영원한 존재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질적으로 다른 천국의 삶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그에게 봉사하는데서 오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는 삶이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엡 2 : 8). 요 17 : 3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즉 영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를 구세

주로 아는데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삶을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참고 요일 3 : 2)

제 1 장 주기도

서론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 : 마 6 : 5-13 찬송 : 325 (합 326)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려 한다.

무엇은 “주기도는 최대의 순교자”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없이 주기도를 외우는데 대한 비판이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하여 주기도의 깊은 뜻과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겠다.

1.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가?

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행 17 : 28; 말 2 : 10; 창 1 : 1)

②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엡 1 : 4)

③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혜를 주사 성별시켜 그의 자녀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참고, 요일 3 : 9)

2.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드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갈 3 : 26)

3.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 47 : 17; 시 71 : 17)

②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사 43 : 4; 뱀전 5 : 7; 시 17 : 8)

③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 (롬 16 : 20)

④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시 34 : 10; 23 : 1)

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렘 33 : 8; 사 57 : 19; 렘 23 : 6; 요 10 : 9-10; 행 1 : 4-5)

⑥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계 20 : 4-6)

4.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마 6 : 25 이하)

② 하나님만 공경하고 (말 1 : 6)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막 6 : 13)

③ 하나님께 순종해야 (뱀전 1 : 14)

④ 하나님처럼 거룩한 생활을 해야 (뱀전 1 : 15; 살전 5 : 22; 마 5 : 48)

⑤ 형제간에 사랑하라 (시 133 : 1; 뱀전 2 : 17 요일 4 : 20)

⑥ 위엿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골 3 : 2; 렘 45 : 5)

구역 소식

인사이드

- 김진덕 권사/상도구역 담당 겸직
- 김매너 집사/상도구역 구역장
- 김정순 집사/삼양①구역 구역장
- 서영희 집사/동부 시외구역 권찰
- 김순호 집사/중구구역 구역장 겸직

축하합니다(3월중 결혼)

- 이 탄/혹석구역 김성숙 집사 장녀—3일, 영빈관
- 백보옥/종로구역 오봉녀씨 장녀—6일, 영빈관
- 윤춘강/초동부 교사—13일, 중원교회
- 오홍삼/20일
- 박정원/이마리아 집사 장남—18일, 영락교회
- 김용식/월곡구역—20일
- 정광석/김원옥씨 아들—25일, 중원교회
- 임창수/임문출씨, 박성기 권사2남—25일, 중원교회
- 김진수/주일학교 교사—27일, 동원예식장
- 권 경/안유향 집사 장녀—27일, 세종호텔
- 김명옥/한순신씨 3녀—27일, 종로예식장
- 심영희/심정희 집사, 김원혜 집사 딸—30일, 세종호텔

위로드립니다(3월중 별세)

- 김만복/불광구역, 1일
- 이원희/장충①구역, 3일
- 장일수/도봉구역, 16일
- 안정희/면목구역, 17일
- 한봉희/종암구역, 25일
- 김재면/혹석구역, 27일
- 서은경/화양구역, 30일

기억합시다

- ※ 오는 5월 16일(3일째주일)에 실시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장로 투표일을 기억하시고 기도합니다. 노회에 장로님 5명을 더 세우도록 하여 달라고 청원 하였다고 합니다.
- ※ 오는 5월 9일(2째주일)은 우리교회 모든 교인들이 헌혈하는 헌혈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내외와 일본의 유병세 집사를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주일학교 교사 합동친교회가 오는 5월 5일(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물자를 아껴 쓰시다

□ 구역장 노트③

권찰의 위치와 심방요령

백 성 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우리교단의 헌법을 볼것 같으면 규칙 제10조에 「믿음이 독실한 남녀 교인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여 매주일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고 전도하며 구역기도회를 가지며 매월 정기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행편을 각자 보고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보아서 권찰직분은 목회자를 도와 심령을 위급하는 일에 관하여는 중요한 직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심령을 위급한다는 말은 모든 교인들과 접촉할 때 교인의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정서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믿음을 키워주며, 위로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감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일을 잘 감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① 먼저 기도로 준비한 후 나서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하며 심방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②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가난한 가정을 심방하고자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③ 심방할 때는 언제나 성경·찬송과 필기구를 꼭 가지고 간다. 교인들의 부탁이나 약속등은 그때 그때 기록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

④ 어떤 심방을 가진 좌석을 바로 정하여 앉아야 한다. 주강하실 분이 먼저 앉은 후에 함께 따라간 분들은 그분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 앉는다. 주인은 출입하기 쉽도록 문곁에 앉는 것이 좋다.

⑤ 가정의 형편과 사정은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미처 모르는 것을 물어야 할 경우는 덕이 안되는 일까지 캐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⑥ 인사의 교환은 친밀감이 있고 다정하면서도 정중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 긴 이야기기를 나누는 것은 예배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 특히 특별심방일 경우에는 예정시간을 넘지 않도록 심방할 가정에 사전에 충분히 알려두어야 한다. 권찰들은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일에 협력해 주는 것이 좋다.

⑦ 심방중 심방간 집의 물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고 물건에 손을 대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헌금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때에때 때 직접 드리도록 권하고 그외에 돈은 물론 물질적태를 일체 삼가해야 한다.

⑨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말고 심방결과를 담당 구역자에게 반드시 보고 한다. 아주 미미하고 사소한 일은 구역장이나 권찰이 알아서 처리한다. 그러나 교인과 교인간의 불화는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어떤 일이나 교인들의 개인적인 비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꼭 지켜야 한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되새기며

오는 12일—17일, 고난주간 행사 실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의의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교회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고난주간을 위한 특별계획을 세워 실시하기로 하였다.

오는 4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진행될 이번 고난주간 행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이 기간동안에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에 집회를 열며 저녁에는 김창원 목사, 새벽시간에는 정상우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 주시리라 한다. 또 이번 집회에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참석하도록 권고하며 남녀좌석의 구별을 없이하여 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을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16일(금요일) 저녁에는 철야 기도회를 열기로 하고 그날 부득이 교회에서 밤을 새우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저녁 9시 30분—11시까지 제 1부 철야기도회 순서를 갖는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성도들의 간증을 증식한 기도회로 모인다.

- 16일(금요일)에는 또한 금식으로 정하고 온 교우가 하루만이라도 금식을 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람은 단 한끼라도 금식을 하도록 하였다.

- 고난주간에 가정과 개인은 잔치나 오락활동등은 삼가하도록 하며 고난주간 특별가정에배로 드리도록 한다.

- 예수님의 고난, 중요 일정 : 11일(주일)—예루살렘 입성·베다니에 유함. 12일(월)—무화과 저주·성전청결·어린이 애환. 13일(화)—제물의 교환등 여러가지 비유로 가르치심. 14일(수)—유다의 배반·유월절 준비. 15일(목)—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의 고부. 16일(금)—빌라도에게 사형언도 받음. 십자가에 못박히심. 오후 3시경 운명하심.

장로 투표일 결정

—오는 5월 16일, 5명 목표—

날로 증가하는 각 지회의 업무량을 감당하며 현 규모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절대 부족한 장로를 더 세우기 위해 오는 5월 16일 장로 투표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여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5일 실시된 장로선출 투표에서는 10명을 목표하였으나 2차 투표까지 거쳐서도 겨우 3명 밖에 선출하지 못한 일이 있다. 올해는 5명을 목표로 하여 실시하리라 하는데 지리장로직은 교인의 백합을 받고 교인을 대표하여 지도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게 된다.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만 30세 이상 된 남자 가운데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담임 3:1—7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는 당회가 개최할 날짜와 장소를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 각정한 시간에 출석한 대로 개최하여 투표자 수의 2/3이상의 가(可)로 선정한다. 투표권은 우리교회 등록한 무흠 입교인은 누구나 있으며 투표방법은 비밀투표로 한다.

부모님 초청 좌담회

—영아부서 자체평가를 겸해—

지난 3월 25일(목) 영아부에서는 35명의 영아부 어린이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초청 좌담회를 열었다. 10

명의 교사와 42명의 어린이가 함께 참석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영아부 활동 전반에 대한 열띤 이야기들이 오갔다. 예배에 대한 것은 물론 영아부 행사, 집에서 어린이들의 달라진 태도, 복요 특강, 어린이들의 신앙생활 상태 등 광범위하게 이야기되었는데 영아부의 이제까지의 교육활동을 자체평가하며 부모님들에게 보다 더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1회 흥현대학부 체전

심신단련과 회원간의 참된 성도의 교제의 기회를 마련코자 대학부에서는 지난 4월 5일 영희국민학교 교정에서 체전을 베풀었다. 대학부 전체를 청룡팀과 백호팀으로 나누어 축구·씨름·배구·릴레이·줄다리기 등을 실시하였는데 목격하던 바대로 모든 회원은 물론 교사들과 학생 사이에도 친교를 두터이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었다고 한다.

부활주일 연합예배

일 시/1976년 4월 18일 오전 5시 30분
장 소/여의도 5·16 광장
대회장/한경직 목사(영락교회)
설 교/홍현설 박사(감리교 신학대학)

※ 우리교회에서는 새벽 연합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오전 5시 30분에 기도회로 모이며(정상우 목사 인도), 낮예배는 주일예배와 같이 3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첫 평신도 선교사 파송

—외과전문의 유병세 집사를 일본에—

망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보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던 중 주님의 뜻을 따라, 평신도로서는 우리교회에서 첫 선교사가 된 유병세 집사가 지난 4월 30일 자신의 근무지이며 선교지인 일본 후쿠카 이도로 떠났다.

의학박사 유병세 집사는 외과전문의로 일본 정부의 청빙을 받아 후쿠카이 도 히로오에 있는 시립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지난 3월 31일 당회장 김창원 목사로부터 위촉장이 전달되었고 4월 1일에는 훈련을 받았다. 일본 선교를 위해 애쓰던 우리로서는 유병세 집사의 파송에 또한 다른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직업인으로서의 그의 선교활동은 계속 이어질 제 2, 제 3의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위해 중요하게 보여진다. 남기고 가신 부인과(이윤호 권사) 자녀들을 위해 선만수 선교사와 함께 늘 기도해 주실 것을 선교부에서는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

주교 각부에 부지도자 두기로

—유년·초등·중등부 등 지도자 물색—

주일학교 교육에 보다 큰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회는 지난 3월 30일 앞으로 주일학교 각부에 부지도자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신학대학 재학중인 학생 또는 우리교회 내에서 적임자를 물색하여 임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신학교측에 인선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한다. 임명된 부지도자는 앞으로 해당 부(部)에서 부장과 지도교역자를 돕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불우한 이웃을 위한 헌혈

—오는 5월 9일 우리교회에서—

해마다 우리교회가 실시해 온 헌혈을 올해도 또 다시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5월 9일 실시하기로 한다. 대한 적십자 혈액은행에서 직원이 동원되어 우리 교회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모든 교인들은 이 헌혈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여 모두 참여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제혈된 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날 헌혈한 헌혈자에게는 헌혈카드가 발급되며 이 헌혈카드는 사후에 필요시 제시하면 피를 도로 찾아 쓸 수 있다. 그간 우리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이 교우들이 헌혈한 피로 응급시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전교인 성경암송 대회

당회는 지난 3월 30일 우리교회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암송대회를 연 3회 실시하기로 하고 그 일정과 내용을 결정하였다. 4월~5월에는 5월 말경에 실시하며 범위는 에베소서 전장, 6월~8월에는 8월 말경에 실시하며 내용은 빌립보서 전장, 9월~11월에는 11월 말경에 실시하며 내용은 야고보서 전장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교회 서무부(이태규 장로)에 문의하면 된다.

로버트 선교사 협동목사로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로버트 레이몬드 왓츠 목사를 본인과 선교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교회 협동목사로 두기로 하였다. 로버트 목사는 이전에도 우리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특강을 하는 등의 접촉이 있었고 우리교회에 출석한 바 있다. 미국 개혁신학교를 졸업한 로버트 목사는 현재 부인과 함께 서대문구 연희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특별히 한부선 선교사가 추천을 하였다.

토막 소식

*합습·세례 문답과 세례식을 치른 주간에 치른 본교회는 오순 성만찬의 성례식이 있다.

*성경학원은 제2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오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여성성가대는 오는 4월 22일 육군 제7230부대 장병들을 위한 진중세례식을 위하여 성가를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오는 4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우리교회에서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열린다고 한다.

*당회는 앞으로 각종기관 및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기능공등 남녀 청년을 상대로 산업선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경학원 도서실을 4월부터는 당회소속으로 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김태현 전도사 후임에 정관일 목사(청년부 지도)를 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주일학교 각부는 오는 18일 부활 주일을 맞아 부활절 기념행사를 각부별로 실시한다.

*주일학교 교사합동 친교회가 5월 5일 동구농에서 가질 예정이다.

*유치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4시에 유치부실에서 그리기 대회를 연다.

*유년부는 오는 4월 25일 성경이야기 대회를 연다고 한다.

*유년부는 지난 4월 5일 유년부 교사친교를 위하여 도봉산에서 유년부 교사 등산대회를 열었다.

*초등부는 오는 4월 25일 유년부실에서 성경퀴즈 대회를 열 예정이다.

*초등부는 지난 3월 28일 아침 예배후 2일에 실시한 「일제심방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중등부는 오는 4월 17일 부활절 축하 촛불 예배를 드린다.

*고등부는 지난 4월 영아부실에서 철야 기도회를 열었다.

*고등부는 오는 17일 부활절 축하 촛불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고등부는 오는 4월 25일 자체 사무검열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부는 지난 2월 29일 대학부실에서 제1회 실교대회를 열었다. 특등 최종규, 1등 장성실.

*청년부는 지난 2~3일에 성화산 기도원서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기 자 석 ○...봄이 왔다. 불안스럽게 내리던 '춘설(春雪)'도, 가슴을 파고 드는 꽃샘바람도, 좀처럼 녹을 줄 모르던 '잔설(殘雪)'도 다 떨어져 버리고 봄이 왔다. 물결은 새악 하나 하나에서도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밀어 올리는 새악의 힘에서 우주의 질서를 느낄 수 있는 봄이 왔다. 도시의 매년 속에서 시들은 가로수에도 빌딩의 그늘에 가려진 웅덩이 속에서도 새악이 울트는 봄이 왔다. 설로 우리는 지금 경이로운 계절의 한복판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신비로운 사실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무더어 있는가? 평이한 일상 속에 늘리어 하루 24시간의 한계 안에서 애쓰고 있지 않은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봄은 이처럼 평이할 수만은 결코 없다. 언제나 맞는 새봄은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동시에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기독교는 부활과 소망의 종교이다. 이 주님의 부활이 없었던들 우리의 믿음도 별의미가 없었을 것이며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무가치한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마지막인 죽음을 곧 새로운 시작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중대한 일상의 사상들을 경법한 과정의 한순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불안한 춘설(春雪), 꽃샘바람 등의 시련을 겪어야만이 화려한 봄이 전개되는 것과 같이 자랑스러운 부활의 감동은 생활 속의 죽음을—죄에 대해서 죽음, 옛사람의 죽음—겪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될 때야만이 진정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내 죽었던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함께 온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는 경이한 마음으로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탄함으로 나아가니라(마 26:20)"로 시작되는 주님의 고난의 역사가 담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보며 우리의 무더어진 마음에 새악이 울터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져본다. 부활이란, 곧 기독교의 절정인 것이다.

봄이 왔다. 어디선가 비발디의 윙기는 듯한 봄(Spring)의 소리가 들린다. (형수)

제 2회 능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안내

목 적 : 도시와 격리된 능어촌 벽지에서 목회하시는 교역자를 초청하여 목회에 필요한 힘을 얻고 지혜를 터득케 함.

참가자격 : 선정된 대상 지역내의 능어촌 소재 본교단 신학교회의 현직 교역자.

기 간 : 1976년 6월 21일~6월 25일(4박 5일)

대상지역 : (1) 강원도 전역 (2) 한독노회와 수도권교회 소속 능어촌교회

경 비 : 숙식비 및 왕복 교통비 제공(환영요금)

장 소 : 충현교회당

과목및강사	1. 교회성장의 비결	김창인 (1)
	2. 교회봉사자의 자세	김희보 (1)
	3. 세계선교의 동향	김영혁 (1)
	4. 전도의 의의와 방법	홍성기 (1)
	5. 교회행정	(1)
	6. 능어촌교회의 발전적	최충열 (2)
	7. 청지기론	정상우 (1)
	8. 새벽 기도회	김창인 (4)
	9. 좌담회	김태현 (1)
	10. 기관방문	김태현 (1)
	11. 교회방문	김태현 (1)
	12. 성경교수 원리	신성종 기타

대한 예수교 총 현 교회 장 로 회

되잡하고 나서

*...부활절을 맞는다. 새봄과 함께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의 생활속에서 느낀 부활의 의미를 찾고자 산뜻한 수필로 엮어진 부활절 특집을 마련했다.

*...「성도와 술·담배」의 특집을 마련하며 각계각층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빌새 이야기」가 되었다. 「다들 필요가 있느냐?」「다들 가치가 있느냐?」「정말 꼭 필요한 문제였다」등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월간 충현」은 자라나는 세대와 또한 이와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교회의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

성서적 근거를 요구하며 이와같은 문제에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우 목사님의 글은 명쾌한 해답이 될 것이다. <형>

<표지 설명>

신앙을 갖는다는 일은 많은 고난과 장애를 동반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생활의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난다. 「밀기 때문에」 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들, 깊은 단절, 소외, 엉뚱한 오해, 할 수 없는 모욕 등.....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지탱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보다 더한 소망이 있기에, 더한 기쁨을 확신할 수 있기에, 더욱 길이 신앙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죽음조차도 우리 「더 풍성한 생명에의 입구」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의 최대의 소망인 예수님 재림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 화려하고, 장엄하고, 경건하고, 기쁘고 기쁜 날을.

월간「충현」4월호·통권제28호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위영환
주 간/신성종
편집국장/조선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4월 11일 발행

충현교회 교역자

1976년 4월 1일 현재

□ 위임목사



김 장 인 목사
(당 회 장)

□ 부목사



백 성 통 목사
(남부·구역권찰회장)



김 재 창 목사
(서부·노년부지도)



정 상 우 목사
(북부·성가부지도)



김 종 택 목사
(동부·장년부지도)



정 기 성 목사
(새신자부·전도부지도)



정 관 일 목사
(장년부지도·도서실장)



홍 종 만 목사
(교육위원장·선교사후보)



신 성 중 목사
(대학부지도)

□ 남전도사



김 태 현 전도사
(초등부지도·성경학원)



이 언 호 전도사
(고등부지도)



윤 영 탁 전도사
(성경학원·종신교수)



이 승 근 전도사
(유년부 지도)



김 일 동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윤 형 절 전도사
(중등부 지도)



이 준 교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 여전도사



이 두 란 전도사
(남부지역 담당)



김 재 일 전도사
(서부 지역 담당)



최 순 복 전도사
(북부지역 담당)



강 봉 선 전도사
(동부지역 담당)



구 명 신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김 경 성 전도사
(새신자부·전도부 부지도)



정 언 희 전도사
(유치부 지도)



정 소 영 전도사
(영아부 지도)



김 언 순 전도사
(공로 전도사)



이 명 달 전도사
(공로 전도사)

실로암
못가에서



믿 음

나는 그리스도가 쓰신 가시관을 보지 못했고,
그 몸에 남은 상처를 만져보지 못했으며,
무덤 문을 막았던 바위도 내 눈으로 못 보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로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믿어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빈 무덤을 본 일은 한번도 없지만서도.
오늘 이 날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니,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의 그림자를
내 마음의 창문을 통해 보았었기에.

* 도널드 에드워즈 (Donald Earl Edwards)의 시,
「기독교 명시선」 중에서.

□ 월간·충현 4월호